

제1회 연세여성주의자 여름 워크샵

지글지글
연세여성주의자들의
속사정



2001. 8. 15. 또하나의 문화 에서

격려사

여성주의

어쩌면 우리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말

어쩌면 하루하루의 지친 일상을 쓰다듬고 다독이는 따스한 손길.

어쩌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무엇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 성가신 스트레스 덩어리.

하지만 어쩌면 당신들과 나를 만날 수 있도록 해 준 가장 아름다운 우대.

하지만 어쩌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심과 질문으로 가득찬 미궁.

하지만 또다시 어쩌면 우리는 여성주의자이기에 행복하다.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힘받게 하기도 하고 힘바지게 하기도 하고, 각기 다른 무한한 생각들로 머릿속을 뒤죽·죽 어지럽게 만드는 주법이 바로 여성주의일겁니다. 여성주의는 뭘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나는 여성주의인가? 내가 여성주의자라면 어떤 여성주의인가? 저는 여성주의인가? 등등.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 만큼이나 우리에게 여성주의는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나고, 우리는 서로 다른 여성주의의 자양분을 골고루 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섭취하여 자랍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공유했고 있는 것들에 가배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서로 다른 지점들을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겠죠. 하지만 정말 분명한 건 우리는 여성주의를 만났기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 여성주의를 받아들여든, 여성주의의 바다에 몸을 담고 있다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무수한 지류들을 탐색하는 걸 포기해서는 안되겠죠. 그러한 우리 내부의 민주주의로 우리 행복할 수 있는 것일테니까 말입니다.

이번 연세 여성주의 워크숍은 연세 여성주의라는 바다로 모여드는 무수한 물줄기들을 확인하는 자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각자가 이해하는 여성주의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흘려온 과정을 기억하고, 우리의 미래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에너지를 모두가 한아름씩 안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남화

지글지글, 보글보글 여성주의자들의 속사정

- 속사정들을 지글 짝, 보글 짝 요리해서 멋지구리한 음식을 만들어내자구요~

2001년 1학기의 끝 무렵, 익명의 한 선량한 시민이 언니네(www.unninet.co.kr) '연세 여성주의자의 집' 커뮤니티에 여성주의자들의 속사정 (이하 속사정)에 대해 제보하였다. 제보를 접수한 몇몇의 여성주의자들이 대책반을 꾸리게 되었다. 대책반은 이 사태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 제보자를 수소문하였으나, 그 시민은 다른 일에 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만남을 회피했다. 수사는 미궁에 빠져들게 되었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대책반은 '속사정'이 무엇인지는 제보자를 통해서만 알아내기는 힘들고, 그 속사정의 조각들을 여기 저기서 수거하여 맞추어 보아야 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속사정 사건'에 얽혀있는 당사자들을 소환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조각들을 증거품으로 압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대책반의 노력 끝에, 오늘 '속사정' 사건의 결정적 단서들이 모이게 된다. 수사는 오늘 아침부터 저녁 내내 이어지고 철야를 할지도 모른다. 물론 밥은 먹여준다. (증인들을 달래기 위해 술도 먹일지 모른다) 그리고 대책반은 증인들이 올 때마다 또 문을 열어줄 것이다.

워크샵 준비팀은 여름 방학 내내 (정말?) 이 일에 신경을 곤두 세웠다. 한 여성노동자가 살짝 제한한 일이 화근이 되어 준비팀은 여기에 말렸다. 준비 회의가 중간에 지지부진하게 되었을 때, 내부에서 '폐기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모두들 이런 자리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사를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 무언가 씁쓸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내놓지 못해서 전전긍긍했지만, 워크샵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든 뭐든, '속사정'들을 풀어내고 싶은 자리가 필요했던 것 같다.

학내외 여성운동이 어느 정도 활발해지고, 여성운동이 조금이나마 공감(정말?)을 얻어가고 있는 지금도 '여성주의/여성주의자'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편견들과 물이해, 적대감은 여전한 것 같다. 그럴때면, 연세라는 공간에서 같이 여성주의 활동에 힘 쓰고 있는 동지(--::)들의 힘이 그리워진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무언가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 그 편안함은 단지 '여성주의자'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들과의 익숙함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라고 도발적으로 추측해본다. 그 편안함/익숙함의 뒤편으로 웬지 불안이 밀려온다. '앞의 사람과 내가 (여성주의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일치할까?', '연세 여성주의자들은 지금 어느 정도의 합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확인되지 않은 합의들에 대한 추측들만 머릿 속을 떠돌고 있다. 그런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성주의가 정말 타당하고 유효한 걸까?'라고 자기 대화를 하게 된다. 결국 자기 대화로 침잠하면서, 서로에게 말걸기는 더욱 두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 (지나친 해석일까?) 왜 현재 연세 여성주의 내외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입장의 차이들의 확인조차 쉽지 않은 걸까? 스스로 경험과 공부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입장들이 반여성주의적(--::)인 것 같아서? 아니면 차이의 드러남이 서로에게 충격이 될 것 같아서? 여성주의의 안정화? 복잡해져서? 아니면 단지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 여성주의에 대하여 조금 더 서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다.

또 모임들의 운영의 문제 또한 짚어보아야 할 것 같다. 여성주의 문화가 서로 수평적인 관계의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 '수평적 관계'라는 게 서로에 대해 터치를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임을 운영하면서 활동에 대한 합의의 지점과 수준에 대해서 자주 얘기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운영이 자칫 너무 느슨해지고, '무체계의 체계'가 그냥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 같이 활동할 사람들을 확보하고, 활동을 지속시키는 것 (세미나 한 번이라도) 또한 버거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고 한다. 자치단체들마다 각자 힘든 점, 혹은 공통으로 힘든 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운영의 경험을 나누고 축적된 노하우를 얘기하자. 그리고 각 자치단체들의 관계와 차이, 그리고 참여와 자치단체의 관계와 차이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또 우리는 이번 '속사정'을 통해 연세 여성운동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세 여성주의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간에 선배들이 했던 활동들의 구체적 사실들, 그리고 그 속의 흐름들 (사실을 모르니까 흐름도 잘 모를 수 밖에)을 짚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축적된 (축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조.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익히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겠조) 연세여성인권운동을 살펴보고, 현재의 지형을 파악하고 현재의 운동을 의미화 하는 작업을 하자. 선배들의 경험들 (배움점부터 시행착오들까지 ^^)이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도록 하자. (우해해) 요런 작업이, 지금의 학내 여성운동이 왜 힘들어지는지 (혹은 힘들어진다고 느껴지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또한 덧붙여서, 여성주의 운동과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졸업을 하고나서, 어떻게 자신의 생계와 여성주의 활동의 연결고리를 이룰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언니네'가 있겠조. '언니네'는 생계가 힘든가? --::) 암튼 연세 여성주의자들, 돈도 벌고 활동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쿠쿠 주로 선배들이 많이 도움을 줬아겠조? 음.. 언니네가 포탈 사이트로 변신하는거야, 아니면 열풍이 신문사 사장이 되든가.. 우해해) 대해 즐겁게 혹은 심각하게 얘기하자. (+a 밤새도록 주절주절-)

이번의 첫 워크샵 자리는 심도 있게, 그러면서도 발랄하게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연세 (혹은 옛 연세 --::) 여성주의자들, 마주보고서는 서로 정답게 이야기 하고 혹은 싸우고 --:: / 옆에 서서는 서로 어깨를 토닥이며,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같이 걸어가고 / 등지고서는 힘들 때 기대어 서로의 휴식이 되어 줄 수 있는.. (한 마디로 전천후 여성주의자들이지! --::)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 프로그램 순서 ■

♀ 자기 소개하기 10:00~11:00

어떤 모임만 시작됐다 하면 지겹도록 해왔던 자기소개! 이제는 즐겁게 크레파스랑 색연필 하나씩 들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나 짧은 문구를 적어봅시다. 모두에게 보여주고 자기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소개하게 되겠죠?

♀ 여성주의적 모임 운영! What's the problem? 11:00~1:00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들 모임에서 활동하면서 쌓여온 의문이나 문제점이 있을거예요. 워크샵에 모인 연세 여성주의자들의 각기 다른 고민을 풀어놓고 또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얘기해보는 자리입니다. 또 모임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야 하는 원칙들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요!

♀ 점심시간 1:00~2:00

점심먹으면서 내가 모르는 여성주의자가 있다면 인사도 나누고 피를 떨어지면 서로 먹여주기도 합시다. "어머, 피를! 너 왜 거기있나?"

♀ 연대 여성인권운동사 2:00~5:00

연세에서의 전설적인 여성운동 역사를 연도순으로 알아보고 그 활동의 해왔던 선배들에게 당시 상황들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여성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들어보고 우리의 위치도 파악하면서 앞으로의 여성운동의 방향까지도 고민해봐요.

♀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Really? 5:00~7:00

'너 여성운동한다며?'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진정한 여성주의란 말이나?'

'난 너무 反여성주의적인거 같아.'

페미니스트로 사는 것도 참 만만치 않죠? 스스로의 여성주의와 가부장성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여성주의자들!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함께 풀어봐요-

♀ Party 7:00~all night!

오랫동안 방바닥에 앉아서 고민을 했으니 배가 고프겠죠? 우리 맛있는 저녁과 술을 함께 들여 끈적끈적한 자매애를 다져봅시다. "어, 단무지야 친구 어디갔나?"

■ 여성주의 모임 운영, What's the Problem? ■

0. 도입

우리가 여성주의 모임에서 겪는 문제들 중 이번 워크샵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문제들은 특별히 '여성주의 모임' 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워크샵 준비팀은 모임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여성주의 문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였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성주의를 모임을 운영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방식의 모임 운영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민이나 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여성주의자들 간에 분명한 합의도 되어 있지 않아 모두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며, 함부로 '이것이 여성주의적인 모임 운영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여성주의적이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있는 것 같다.

처음 학내에서 여성운동이 시작되고 여성주의 공동체/조직이 생겨나면서부터 공동체 내의 여성주의 문화는 시작되었다. 당시 여성주의자들은 기존 학생회 질서나 다른 운동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권위주의, 남성중심주의 등-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들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구성원들 개개인의 특성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많은 모임들이 '여성주의 문화'로 뭉뚱그려진 그 무엇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1. 구성원들간의 활동에 대한 합의 문제

대부분 많은 여성주의 모임들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여성주의'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그 문화에 대한 익숙함/편안함을 가지고 있고, 여성주의와 관련된 무언가 혹은 여성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각 모임마다 모임별 특성에 따라 주된 사업이나 활동을 해 왔다. 고정된 사업이 있는 모임도 적지만, 구성원들의 변화와 그들간의 차이나 취향에 따라 활동이 변하고 고정된 사업도 시기가 달라지거나 조금씩 다른 사업으로 변한다.

새로 들어온 구성원과 이미 활동하던 구성원간에, 또 이미 활동하던 구성원 사이에도 앞으로의 모임의 방향에 대해 분명한 상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개개인이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드러내어 얘기하거나 조율을 잘 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2. 선후배간의 관계/역할

'나이주의 철폐'는 조직 내 권위주의, 선후배간의 경직된 위계질서를 부수고 나이나 학년에 관계없이 반말하기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왔다. 또한 많은 여성주의 모임들이 대표 한 명만 가지고 있거나 대표도 없는 '무체계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많은 조직들 특히 학생회 조직들이 학년을 중심으로 'xx장'과 'xx(국)원'으로 구분되고, 일반 학회와 같은 곳에서도 선배와 후배가 학년

별로 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는데, 여성주의 모임들은 그와 같은 체계가 거의 없다. 선배들의 구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주로 대표 한 명이 있고, 활동에 있어서 팀을 꾸리거나 개개인에게 역할이 분담되는 방식이며 그 팀과 역할들은 모두 평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선배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권위주의적이 될까봐 고민하고, 많은 일들을 후배들과 나누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후배들의 자발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내기들도 기존의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모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도 모임 운영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모임의 어떤 선배도 후배에게 '이것을 해야 해'라고 강력하게 말하지 않는다. (혹은 주저한다.)

3. 재생산의 문제

대부분의 여성주의 모임/조직이 새내기(1학년)나 새로운 회원을 정기적이거나 체계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 새로운 사람들을 받는 모양은 각 모임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모임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받을 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고, 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같이 일을 시작할지, 어떻게 익숙해질지 마땅히 하던 방법도 없고, 원래 있던 구성원들의 각자 생각도 다르다. 때때로 모임들에서 신입생 대상 기초세미나나 신입생 환영회 등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학회 등에서는 새내기들을 위해서 기초 세미나를 하는데, 기초 세미나를 준비하는 모임도 드물다. 이는 들어오는 사람들의 학년이나 학번이 중구난방이라거나, 모임의 활동 특성상 신입회원을 위한 무언가를 준비하기 벅하다는 등의 이유가 있다. 또한 모임의 활동이나 유지를 길게 내다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받을 준비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사실 많은 모임들이 새내기들을 잘 받지 못해서 모임의 미래가 암울해지곤 한다. 그러나 매 학기 초 총여학생회나 자치단체의 공간으로 찾아오는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라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당황하곤 한다. 이같은 상황은 아래의 '악한 소속감'과 관계된 이야기이기도 하다.

4. 악한 소속감

강제도 없고, 소속감에 대한 압박도 없다. 새내기가 들어와도 함부로 모임에 꼭 들어와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런 방식은 어쩌면 아무 정보도 없는 새내기들에 대한 억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새내기들이 처음 모임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친해질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처음에 여성모임에 편히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떠나는 새내기들도 많다.

☆ 사족

총여학생회 조직, 여성주의적인 운영이 가능한가?

여성주의자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긴 하지만 여성주의적인 조직 운영을 한다고 하기에 아님 것 같고, 그렇다고 다른 학생회들과 같다고 말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조직이다. 자치단체들과

비교해보면 총여학생회의 다른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학생회라는 위치와 총여가 가지고 있는 공간, 역할들로 인해 일상업무가 끊임없고, 활동이 멈춰있을 수 없다. 각 집국은 자신의 역할이 분명하고 동시에 항상 상부상조가 필요하다. 업무 중심으로 활동이 돌아가고, 총여학생회라는 위치가 계속 주입(?)되면서 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대책 없이 계엄령을 피우는 경우나 잠수하는 경우도 적다. 그리고 계속 일을 하면서 의욕과 아이디어가 계속 생겨난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면서 집국 내에서는 내용 생산을 하기가 쉽지 않고, 집국끼리 친해지는 시간도 부족하다. 가끔씩 돈을 좀 쓰면서 회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큰 위안! 회의를 아무리 자주 해도, 행사가 많아서 아무리 자주 봐도, 뒤통이를 자주 하거나 총여실에서 잘 놀지 않으면 서로에 대해서 잘 알기 힘들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도 힘들다.

연세여성인권운동사

*여기 실린 내용이나 사건들은 편집자의 한정된 자원과 지식과 주변 정황에 의해 많이 제한/편중되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그 밖의 각종 실수와 모자란 점들도 양해 바랍니다.

1995년

● 성정치 문화제1)

● 선거(새로운 전선 성의 정치) 낙선

1996년

● 1월 'the other-성정치 위원회' 생겨남.

● 소위 '연대/한총련 사태'

96년도 말 그 때 자료가 없고, 그래서 학내에서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이름 없는 모임이나 사람들이 모여 계 돼(이아~ 멋지다!) 그래서 이름 없는 사회대 모임이라, 동쪽이라, 이과대 여학생회라,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지. 학생회 구조에 대해서 이게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여성 자치연합 결성) 그 여자연에 있던 최승민, 이선민, 조재나 뭐 이런 사람들 96년도 말에 여성운동이라고 학생회나 학생운동 진영 전반에 대해 문제 있다. 지금 이게 안되지 않냐. 이런 식의 학생 사회에서 정보운동은 좀 아니지 않냐. 그런 게 있었지. 오늘 책이나 여성운동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책 조합 운동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운동하면서 그런 포럼도 하고, 그 때 그 쪽에 동조, 동의하는 사람들이 여자연에 많았지. 정말 싫었던 게지. 심지어 그 싫어했던 최승민이 선거에까지 나가야 했던 이 비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때부터 계도교와의 전쟁은 시작됐지. 【조제】

나는 잘 몰라. 96년도 2학기 때 성이 오물에 빠진 날이라는 성정치위원회의 제2대막 행사에 참여한 새내기였거든. 【통통】

1997년

● 여성자치연합

● 제1회 여성제-갈들여지지 않는 자신감

1) 그 당시 자세한 이야기는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참조

그 때 우리가 종여실을 사용하면서, 학생회에 가서 종여학생회원으로 나오는 지원금도 달라고 해서 쓰고 그랬지. 여성제가 있었지. 1회 여성제, 갈들여지지 않는 자신감 그게 3월에 있고, 그리고 나서 참여성의 바람소리가 나왔지. (여자연은 반대표 운동 안 했지?) 아니야~! 여자연이 그 당시 질문이라든 문제의식이랑 이런 거 다 만들었다. 비온도 같이 안 개고. 비온도 beyond가 그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부웅~ 떴지. 그 때 그 종여 후보들이 선거도 처음 해 보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감이 없었어.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랬지.

그런데 계도교에서 종여학생회 후보를 내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후보를 만들어서 송민이라든 오윤이라든 해서 선거를 나가게 됐지. 그렇게 학생회 구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참 종여 후보로 나왔으니... 그 때 피튀기게 논쟁도 있었지. 학생회를 내가는 게 맞느냐 아니냐. 학생회는 정말 아니다. 우리가 왜 안 했겠냐. 학생회 맡게면 올때도 충분히 했을텐데. 결국에는 그래도 공간이나 예산이 나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개네가 안 나왔으면 사실 종여학생회를 할 필요가 없었어. 개네가 그냥 종여를 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갈 길을 갈 거지. 아니면 개네가 아예 받을 못 붙이게 할 거지 - 종여를 개네가 집으로 인해서 여성운동이다 뭐 이런 게 담보되는 면들 이런 게 곤란한 거지 - 어려다. 그런 데 개네가 종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성주의자들이 (운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리고 도저히 저들을 우리의 종여학생회로 인정할 수 없다! 아무리 학생회가 맛이 갔다지만, 그래도 안 된다. 이래서 지 되게 열심히 했어.

여자연 때는 뭐 우리끼리 세미나하고, 페미니즘 캠프도 가고, 청년학생안마당도 가고, 놀러도 가고, 만경에도 가고. 여자연 이름으로 행사를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게 없었어. 상식적인 회의나 이런 것도 없었고 무언가 활동할 게 있으면 그 때 모여서 회의하고 그랬지. 여성제가 있었지. 【조제+통통】

3.8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신문을 내며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탄생

어떻게 3월에 탄생했지? beyond가 탄생했을 때는 그 당시에 사회대 안에 이래저래하게 노당들이 어러 있었는데, 우연히 '3.8 세계 여성의 날' 이러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그걸 그때까지 아무도 기억하거나 기념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왕당애 하면서, 97년 3월 7일에 처음 3.8 여성의 날 기념 행사와 신문을 발간을 했어. 근데 그 행사 끝나고 나니까 다들 사람들이 우리 어디로 헤어지게 너무 아쉽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름도 없이 그냥 몇 번 모임을 했었지. 그러다가 '참여성' 나오면서 굉장히 결집해서 함께 싸우게 되었던 거. 【서타】

● beyond 포럼(화장)

● womb 탄생

● '참여성' 총여 후보 등장, 반대표 운동

참여성에 대한 반대표 운동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이 그 이전에 학생회 체제나 이런 것에 대해 불만도 있었고, '참여성'처럼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보결선거에서 당선되어 버

린다는게 참을 수 없었던 것 같고, 아직도 막관 여음에서 뽕뽕하게 자보쓰고 물집앓던게 생각이 나. 막 여음 본담에서 단대마다 붙이고 다니고, 떨어지면 열받아 하면서 또 갖다 붙이고, 그리고 그때 반대표 온 등이 깨지면서, 사외대에서 다른 여성주의자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림되어 있던 beyond가 여러 여성주의 자들과 알게되고 만나게 되고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 【시바】

beyond 97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그 오로 포럼은 97년 10월인가 11월에 있었던 거거든. (그 때 반은 어때고, 준비할 때 느낌은 어때어?) 준비할 때는 재미있었지 우리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가지고, 막 여기저기 소문해서 찾아서 포로노 빌려서 다 같이 한 집에 단체로 몰려가서 보고, 애들이 막 '숙어 이 상매!' 이런 얘기 막 하고. (사외대 대상으로 만 거여지?)음. (사람들 많이 왔어?)음.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 (어때어? 끝내고 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근대 표면의 자유와 관련해서 그 때 안장 그 이면에서 연와 천국의 신화였어? 그게 막 불거지면서, 표면의 자유 얘기가 포로노 얘기까지 넘어간 거로 알고 있거든. 난 처음 준비단계부터 같이 한 건 아니었지만 처음 주제를 포로노로 잡은 이유가 그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표면의 자유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게 웃기.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때 나는... 나한테는 그 포럼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으니까. beyond에 합류하게 된 계기기도 하고, 표면의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나 포로노라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기도 했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 나한테는. 【다디】

1998년

10대 여성주의 총여학생회(두입술과 여성학생활동서관 태동)

"재미있지,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 "그런데 사실 싸우는 것도 의미가 있었던 거... 왜 그 전에 '성정지' '이래면서 선거를 나왔어'는데, 그 이전의 여성운동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랬지... 그 때 그렇게 막이하게 얘기를 했었던 거.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활동을 할 거지, 그걸 실제로 하게 된 거지." 【from 오늘, 오후의 심으로 많은 단어와 문장이 의미가 비슷한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것임】

10대 여성자치단체들 - 모반, 열세번째, 이과대 여성모임, 공대 여성모임, 법대 성연구 모임 등그래지는 온쪽이. 음..

동쪽활동이요? 음- 동쪽은 법대 여학생회에서 만든 세미나 팀이었어, 원래 여름방학 때 96년도 여름 방학 때부터 세미나를 시작하게 돼서 들어가게 되고.

(여학생회/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학생회는... 레드랑 만나게 됐어, 맨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그 어떤 문제 의식이냐면, 음. 그 때 안장 살았을 준비할 때 내가 같이 준비를 하면서 애들 만났고, 이제 살았을 외부단위였고, 그러면 내부에서 다르게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서 레드랑 얘기를 하다가, 레드 같은 경우에도 학생운동을 접하면서 여성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였고, 나도 그 당시에 (쪽팔리는 일이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 때 좀 막간 거지되어 있던 것도 있었고, 처음 시

작하는 단계라서, 여성운동이 학생운동에 적대적인 게 있었고, 적대적인 이유가 설명이 안되고 언어와 안 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정리를 해 보자, 이런 목적 하에 모이게 됐는데, 하면서 사실 맨 처음에 했던 행사는, 여성 미술이었어, 페미니즘 미술. 아 그 때 재미있었어, 그 때 정미언이가 와서 강연했어, 정미언이가 강연을 했는데, 그 때 정미언이가 여성학과 들어간지 얼마 안 돼서 첫 강연이었어. 다 우리 돈도 줬어- (어디서, 그냥 학내에서 모든 연세인을 대상으로?)음. 아 그 때 멋진 기회, 자료를 만들어서 페미니즘 미술 전시도 하고, 살라라 공주라는 사람이 와서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도 해주고, 정미언이는 강연하고.

그 때는 공대같은 경우는 포부를 가지고 잔의가 만들 생각을 했는데, 아 그 때는 공대에는 생각과에 여성모임이 있었어. 【시바】

(womb) 음... 내가 제일 인상깊었던 건, 연대 내 유일한 여성주의 문화사업모임이라는 그 계획을 내게 되게 독특한 정제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고, 앞으로도 어 그런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어. 사실 사람들이 '모임' 하면 대중문화, 음악이나 춤을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는데도 사실, 이라고 하면 참 많고, 여성주의적으로 한다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문제 제기 하고 그랬던 게 멋지던 것 같아. 불타는 아이돌이 나와서 그랬지, 그런 것들, 불타는 아이돌은 직접적으로 보여 주진 않지만, 일상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다른 운동의 형태였던 것 같아.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아이돌, well... 아이돌이 멋지게 활동하고 있는 것도 되게 좋고, 재밌는 것이었는데, 그게 아직 azac이 되면서 그 맥을 잇고 있다는 게 좋아, 그래서 참 기분 좋아 역시 음악이! 【애경】

beyond 포럼, 자치규약 자료집

(자치규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치규약! 아 98년에 자치규약 처음 만들고, 근대 정말 성취했어. 그 토론을 하는 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알어? 그 강의실 꼭 차다니니까 준비도 되게 많이 하고, 난 자치규약 자료집은 뿌듯한 기억이야, 기백, 이번에 만든 광년에도 그래. 【다디】

나는 제일 기억나는 건, beyond에서 자치규약을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때가 제일 많이 기억나. 좋기도 했지만 좀 어려웠던 거보다는 되게 힘들었던, 처음인데 안 힘들었어? 고생도 많이 하고, 뿌듯하고, beyond에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면서, 막- 엄청 떴지?(모모모모) 【아인】

두입술 창간 준비호/창간호

선거-여성행동' 선본 낙선

갑자기 생각났어, 그 때 11대 선거 때 3차 우세 때 그 이상한 발언을 해 가지고, 온 여성주의자들을 혼나게 만들었던, 그게 생각이 나. 어 진짜 열 번이었어, 진짜! 그 때 자치단체들 다 안동속으로 몰려서, 나 그 때 beyond 입장이었어? 안동속으로 몰려서, 테이블을 끄러갔다. 그랬더니 나네끼리 나네끼리

기 마쳤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뺄 줄아서 그랬던 거였어 나 계속 가는 걸 얘기했어? 11대 선거는 정말... 【이인 진정쓰】

1999년

● 여성자치연대

● 동쪽방 시절(이과대 여학생회, 두입술 창고 방 있었으나 잘 사용 안함)

● 11대 총여학생회의 만행-두입술과 생활도서관 강제철거, 잠수

동쪽방 시절, 그러니까 절개 사건도 있었고 두입술 부트대 그랬지 그 때는 이 동쪽방을 사수하기 위한 몸부림 어떻게 쫓겨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다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만... 그러면서도 내 생각엔 참 직유유기랄까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애 막내에서 문제가 막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때 왜 주자 도우미 문제도 있었어?) 응 주자도우미 말고도 뭐 일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했어 우리끼리는 막 뭐라고 말 많이 하고 그랬지만 무물쭈물 하고 있는 사이 11대 총여 애들이 다 막 하고. 【틈틈】

● 모반 '반성폭력 학교(자치규약 제정운동)'

● 제2회 여성제- 여우야 여우야 어디있니?

(상상력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상상력을 만든다)

(2회 여성제 어땠어?) 좋았어 (어떤 면에서 좋았어?) 뭐 그 때 기독교 종이가 마도 명의를 떨치던 상황이라서 우리끼리 뭔가 행사를 펼쳤다는 게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게 좋았어 (특히 기억에 남는 행사는 뭐였어?) 그 와 모반에서 했던 yes no발백다도 생각나고, 폐막제도 기억나고, 영화제도 기억나고, '한평만 다오'도 기억나고 (임들거나 그런 건 있었어?) 임들기도 했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힘들었지 좋았어요~ 【뚜지】

어 여성제는 되게 멋있었어 그 때는 되게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거의 막 아시바 싸워서 직접 하고, 여성 영화도 들고 그 때 맘껏 즐길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는데 그런 게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 크진 않더라도 종이가 마지 않더라도 자치단체들에서 자기네 정체성에 맞게 다른 사람들과 맘껏 할 수 있는... 【예검】

● I will 탄생, 여성화 생활도서관→자치도서관→feminary로 명칭 변경,

99년 하반기 여성연구소로 이전, 활동 재개

(12대 선거에 대해서) 그 때 재밌었지 (왜?) 선거라는 게 워낙 미끄러지만 한 공간은 아니잖아 하는

과정에서야 좋은 것도 있고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되게 괴롭고 짜증나고 아끼 싫은 것도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 때는 특이 외부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응 관계가 그 내부가 돈독해 지면서, 뭐 그렇게 하고, 특히 중요한 건 만약에 적으면 이런 얘기도 못하겠지만 그 때 이렇게 그 압도적인 표차로, 50%이상의 득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떠내면서 이겼기 때문에(그 때 3파전이었지)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정말 되게 기뻐지, 정말 정말 기뻐지 (선거할 때 기억나는 재미있는 일이라든가, 왕당만 일어나 그런 거 있어?) 뭐 그냥 순간 머리를 스치는 게, 1차 문외요세 때 똑지가 노래하고 들어갔다 가 넘어졌잖아 똑지는 넘어져서 만만에 있고, 나는 그 상황에서 사람의 인지상정이라, 괜찮냐? 하면서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매아 마잖아 그런데 너무 웃겨서 표정 관리가 안되는 거야 그래서 나 뒤돌아 서서 먹~ 웃었잖아 하지만 더 기억나는 건 그게 얼마나 외계적인 상황이야~ 그런데 그녀는 너무나도 몰랐어 게 외계의 상황을 모면했지 그게 기억이 나 그 노래 가사와 딱 연관하면서, 아 정말 몰랐던 위기 관리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이인】

2000년

● 12대 로그인 연세총여

(12대 총여하면서 어땠어?) 아쉬움이 되게 많고, 뭐 막생외라는 것의 안개도 많이 느껴졌고, 아쉬웠던 게는 워낙 다른 자치단체들보다도, 총여학생회는 업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어쨌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생외를 같이 꾸린 사람들이 다 친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친목이라도 친목이고 나름대로 끈끈함을 만들고 노력은 했지만 처음에는 잘 됐어 아이디어도 딱딱 업무 하나 할 때마다 과정이 되게 복잡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일에 치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 끈끈함을 다질 시간에 차라리 집에 가서 한숨 더 자고 싶고, 이런 상황들과,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 아쉽지. 【이인】

자난에? 나 말고 딱 애들도 있어 응... 글썽... 결혼 연애 성 이런 얘기는 그렇게 놀랍지 않았는데 특히 그 성폭력에 대한 세미나를 할 때 몰랐던 것 많이 알았던 것 같애 공격력에 의한 성폭력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아 그리고 그 처음 접하게 되는 놀랍게도 친숙한? 판안한 여성주의 문화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어 뒷풀이를 하는데 술을 안 먹어도 되는 거야 나는 술을 잘 못 마시잖아 술을 안 먹어도 되는 3월의 그 문화는 참으로 놀랐었어 그리고 그 때 같이 했던 아이들이 내뽀랑 노래랑 뜰어랑 음 이고도 있었어 무척이나 반갑고 기뻐지 아, 그리고 세내게 여성학 학과가 있다고 그래서 기뻐했지. 【여검】

● 연성부연 활동- 새터 반성폭력 내규, 반성폭력 화칙(규정안) 제정

기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금은 내가 못 느끼는 것일 수도 있는데 모든 대학의 여성운동 하는 데서 가장 잘 하는 곳일 거라고 생각했어, 처음에? 메이데이 응, 메이데이 집회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감동 받았어 민중대회 갔을 때는 구로 설명을 해주는 데 그 때는 공부하는 느낌이었어, 메이데이 때는 구로

외지여서 절감이며~ 여성제 때는 모반에서 만화계라던데 그 때 여성제 영화 상영하는 거랑 너
무 행사가 전체적으로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모반에서 만화계라던 만 개 같았지 여성제에 참여하는
느낌이 안 들어있어 영화제도, 여성주의자들만 와서 본 것 같고, 여성제를 맞다는 느낌보다는 모반에서 행사
마나 했고, 영화 봤고, 이런 느낌이었어 선거운 벌로 느낌이 안 좋았어 여성뿐? 너무 어려웠어 아직
문자로 보내면서 수정했던 거.. [from하리]

2001년

● 13대 별 수 있/다! 총여학생회, beyond, 모반, 페미니리, 두입술, 위카, I will

멋진 페미니스트가 되는 법

남차별주의에 맞서 싸워라. 바로 지금. 여성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또 자유를 위하여 싸워라. 여성인 너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여성을
사랑하라. 거부하라. 분노하고 투쟁하라. 고통스러워 말고 조직하라.
인종, 계급, 연령, 동성애로 인한 차별에 맞서 싸워라. 근심을 털고
독립하라. 걱정하고 자신을 존중하라. 거시적으로 사고하고 구체적
으로 행동하라. 조직되지 말라. 여성임을 확인하라. 약점함을 창출하
고 위험을 감수하라. 너 자신의 힘을 되찾아라. 바로 지금. 이것이 평
등이다. 너 자신에게 감사하라. 여성임을 축하하라.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라. 심화를 깨부수고 여성을 발견하라. 레즈비언을 존중하라.
권력을 인정하라. 너의 몸을 사랑하고 원하는 만큼 치장하라. 행복한
섹스를 실현하라. 걱정하고 합법적으로 접근하는 낙태를 통해 출산
을 통제하라. 어머니는 아이들에 대해 위탁모로서의 위치를 찾아라.
관습을 거부하는 노년자를 감당하라. 바로 지금. 투표, 집회, 여성차
별 거부, 로비를 통해 여성운동가가 돼라. 정보적인 여성을 창출하고
여성을 향한 폭력을 물리치는 상기원을 여독하라. 경제정의의 요구
하고 더 많은 보수를 요구하라. 소리를 질러주고 그것을 즐겨라. 바
로 지금. 어머니의 대지를 축복하라. 전쟁을 반대하고 억압을 거부하
라. 인종의 정치를 생각하고 남성과 더불어 평화를 만들어라. 도화선
이 되고 자극제가 되어라. '나쁜 여자들'을 지지하라. 페미니스트 정
치 조직에 참여하여 자원활동을 하고 헌신하라. 힘을 키우라. 애정을
쏟으라. 너 자신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라. 멋진 기억들을 모아라.

바로 지금 행동하라!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really?

여성주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활동하고, 그 속에서 여성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중에도 까마득하고 답
답한 부분이 있다. '나는 여성주의자이다!...' 정말???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결국 신념과 확신의 문제이니 단순한 일 일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신념이란 결
코 쉽게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일상 속에서 많은 도전을 경험하게 된다. 개인에 따라, 경험에 따라 같은 여성
주의자라 할지라도 여성주의자로서의 고민은 서로 다른 지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가 여성주의자임을
의심하는 그 순간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 워크샵을 통해서 각자의 고민을 공
유하고 여성주의자로서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기 위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1. 타인의 시선에 의해 규정된 여성주의자?

여성주의자에 대한 타인의 시선은 많은 경우 왜곡되어 있다. '너 여성주의자?' 라는 말 속에
는 '너는 편협하고 피해의식에 사로 잡힌 여자구나...' '과격하고 편협한 사람 아니?' 혹은 '재
랑 놀면 안되겠다...' 뭔가 자신과는 다른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분류하고 다르게 대하는 사
람들 속에서 난 의심하게 된다. 나 정말 그들이 말하는 여성주의자일까? 어... 난 그건 아닌데...
왜 그들은 날 이렇게 볼까...? 어느 순간 나를 여성주의자라고 소개하는 데 있어서 주저주저하게
된다. 또한 여성주의자로 낙인 찍히는 그 순간 또 다른 걱정을 하게 된다. 나의 모습이 여성주
의를 대표할 수는 없을 것인데 나를 보고 전체 여성주의자를 평가하지나 않을까? 여성주의와 별
상관 없는 나의 행동까지도 '아...당신은 여성주의자라 그러시는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민하게 된다.

2. 내 안의 반(反)여성주의

내가 아무리 여성주의자로서 많은 활동과 고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모든 삶이 여성주의
적일 수는 없다. 나라는 존재 역시 이 땅에 발 딛고 살아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가부장제를 습득하였기 때문이다. 일상의 삶은 때때로 성찰적이기 보다는 습관적으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 같다. 나의 신념과 행동이 불일치 되는 그 순간(인지적 부조화라고
하나?) 갈등하게 된다. '나 여성주의자 맞아?' 예를 들면 그렇게도 비판하던 획일적인 미의 기
준에 조금이라도 맞추려고 하는 내 모습이라던가, 진짜 마초 같은 남자 배우가 좋아진다던가...
무거운 물건은 좀 남자애들이 날랐으면 하고 비판하던가... 그 실례는 수도 없이 많을 것 같다.

또한 자신이 행하는 반여성주의적인 행동은 잘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여성주의자들이 행하
는 반여성주의적인 행동은 잘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지적해야 하는
지... 혹은 꼭 지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겠다.

3. 너무나 많은 여성주의

내가 하고 있는 게 여성주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헷갈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주의'란 이름을 내걸은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여성주의 자체가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 중에는 여성주의가 아닌 사이비 여성주의도 있다. 세간에 인지도가 높은 몇몇 사람들은 스스로가 여성주의자임을 자처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여성주의자가 아닌 경우도 많다. 최근 나에게 충격이 되었던 에코페미니즘 역시 그러하다. 에코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사람의 논리가 나에게 반여성주의적인 것으로 다가왔다. 그렇다면... 에코페미니즘 자체가 내가 믿고 있는 여성주의와 상반되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에코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

여성주의라는 큰 틀 속에서도 너무 다른 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어렵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입장을 가지게 되더라도 어딘가 내가 한 부분에 고착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불안함이 존재한다.

여성주의자로서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발제문이 너무 새내기(?) 여성주의자에게 초점이 맞춰있지나 않는가 생각이 든다... 흑흑흑... 대부분의 여성주의자들은 다른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우짜지...

후/기/

처음에 워크샵 얘기가 나왔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연세 여성주의자 모임에서 계획에도 없던 한판 세미나 워크샵 기획단에 말리면서 너무 괴로웠다. 그래도 워크샵 준비는 가장 재미있었고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모반 활동을 하는 데에도 많이 도움을 얻게 될 듯 하다. ^^ - 쉬라

아직도 허접한 워크샵 혹은 워크샵 답지 못한 워크샵이 될까봐 너무 걱정이 많이 되지만, 준비 과정에서 다들 비스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웬지 반가웠다. 한편으로는 그런 막연한 고민들을 표현할 언어가 마땅치 않다는 것도 답답했고.

어쩐지 생각보다 행사가 많이 커지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무언가 그럴듯한 걸 우리가 시도한 느낌! 만약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하게 된다면 더 잘 할 수 있겠지. 함께, 모인 여성주의자들이 즐겁고, 힘을 얻어간다면 더할나위없이 기쁠 것이다. 아직도 허접한 내 발제문이 날 괴롭혀... ^^ (오하하 후기가 너무 딱딱해) - 솔라

썩. 우선 준비팀에게 회의때 종종 늦었던 거에 대해 미안함을 전한다. (저금 후기도 가장 늦은 거 같다.) 그래도 같이 준비하면서 즐거웠고, 서로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게기가 되었다.

후기 쓰는 지금도 '과연 워크샵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을까' 불안하다. 워크샵 참가하는 여성주의자들을 믿을 수 밖에. 내년엔 더 준비 잘해서, 제 2회 워크샵이 훌륭하게 치루어지길... (이렇게 재미있는 후기를, 흑흑...) - 콰이

드디어 시작된다 ^^

"지금지금-보글보글- 연세 여성주의자들의 속사정"(제1회 Summer Workshop)

이번 워크샵을 통해 꼭 얻어 내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타인들의 경험에서 우려난 소리이다. 그것도 속!사!정! 내가 고민하는 것들, 힘들어 하는 것들... 우리 연세 여성주의자라는 이름하에 모인 사람들이 한번쯤은 모두 고민해 보았을 것이고, 그런 것이라면 혼자 속앓느니 함께 나눠보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를 하게 되었다. 물론 중간에는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도 났지만(감히 파X 라는 말까지 꺼내...미안해- ^^)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먹어야 했다. 그래도 워크샵 준비팀은 우뚝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재미있는 회의라서 회의적인(!) 삶에 빠져있던 나에게 위안이 되어졌다(막강! 업기! 코믹! 기획단..혼민정음 게임에다 뽀얀 슬로트...ㅋㅋ) 아무쪼록 처음으로 하는 것인만큼 잘 해서 제2회, 3회...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단추를 잘 꿰어야겠지...모두 화팅- 히히- ^^ - 후주

워크샵 준비모임은 결과적으로 참 재미있었다.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고, 그 이야기의 주제 각 '여성주의자로서의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덕허덕 하였지만 잘 해나간 것 같다. 뽀뽀뽀- 2회, 3회 워크샵도 열릴 수 있기를-

모두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 - 여랑